

みんなくりポジトリ

国立民族学博物館学術情報リポジトリ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加して

メタデータ	言語: jpn 出版者: 公開日: 2009-04-28 キーワード (Ja): キーワード (En): 作成者: 黒田, 和男 メールアドレス: 所属:
URL	https://doi.org/10.15021/00001869

ボランティア活動に参加して

黒田 和男

1 はじめに

私は平成13年5月より国立民族学博物館の展示にボランティアとして何度も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その活動は、①企画展「大正・昭和くらしの博物館」が2回、②巡回展「弁当からミックスプレートへ」が12回、③特別展「ラッコとガラス玉」が11回、そして④「2002年ソウルスタイル」が18回です。

ボランティア活動をする際、展示実行委員の先生方（今回は実行委員長の朝倉先生はじめ）、学習支援室、館員の皆様にご指導をいただき展示場に立ちます。来館者が何らかの疑問をもって見学されていると感じた時、一声、声をかけることによって展示品に興味をもっていただき、その結果満足してかえっていただければと思っています。

一方、展示品と対話のうえ、じっくりと見学される方もあり、その時一声かけるかどうかのタイミングは非常にむずかしく大事なことと思います。平成14年8月4日の朝日新聞の投書欄「声」に「そっと遺物と向き合いたい」という記事がでていましたが、同感です。

2 来館者について

今回は平日12回、土日6回のボランティア活動を行いました。当然のこととはいえ、平日と土日では来館者の観客層が違いました。

平日は学校団体が多数入館しましたが、一部学生が館内で騒ぎ、目に余ると同時に一般来館者に迷惑をかける状態が何度かありました。騒ぎの一端は靴を脱いでの開放感かとも考えられます。気をつけて見ると引率の先生が見あたらない場合が多く、どのように注意をしてよいかとまどいました。一方、先生方が事前見学をし、ワークシートを持参のうえ入館される学校があったことも付け加えておきます。

土日は家族連れ、地域グループが多く、二階の試着コーナーは盛況でした。そのなかで順番を待つ間に来館者同士の会話がはずんでいたのが特に印象に残りました。一階では家族のビデオを、二階では祭祀のビデオがよく見られていました。

また、来館者の反応は、①展示場の大半が靴を脱いで見学する。②館内どこでも写真が撮れる。③一階部分では周囲のケースと一部固定品以外、手で触れることができる。などの初めての展示方法に驚かれたようです。

また、④遠方からの来館者、⑤何回目かの来館者、⑥初めて博物館の見学をした、な

ど、今までとは観客層が多少違っていた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特にテレビ・ラジオ・新聞などで何回か取り上げられた影響もあるかと思います。

3 質問について

- ①李さん一家の生活レベルは、どのようなものか？
- ②今の李さん一家はどのように生活しているか？
- ③展示後、これらの資料はどうなるのか？

といった質問が多く寄せられました。

特に40歳代以上の来館者の方が、生活レベルについて自身との比較に話しが入り、多少とまどいを感じました。

4 今回の展示で気づいたこと

ボランティア活動をしながらかがづいたことを順不同に記してみます。

- ①一階の展示は大半が手で触れることができるが、二階に上がると手で触れ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ことがなかなか徹底されなかった。
- ②韓国のアパートでのベランダの使用方法が、国の文化の差なのでしょうが、なかなか理解できないようだった。
- ③子ども用の試着服がなく、親子で一緒に写真が撮れない。また、小学生の団体から何で子ども服がないのかと問われた。
- ④靴を脱ぐ場所と玄関が反対にあり、入り口がわかりにくかった。
- ⑤一階の家族のビデオを見るのに、ビデオの前が通路にもなっており、ゆっくり見られなかった。
- ⑥学校団体入館申し込みの際、展示趣旨の説明を受けつけてはどうだろうか。なかにはただ展示場に生徒を入館させ時間を消費させているだけの学校もあるように見えた。これは学校団体を排除するのではなく、より興味をもって展示を見ていただくためだ。また、入館前に5分程度でも説明をしてはどうかと思う。なお、学校団体の入館の際は、引率の先生がすぐわかるように帽子・腕章などをつけていただくようにしてはいかかかと思う。
- ⑦ボランティアはスリッパを履いていたが、来館者は素足であった。今から考えると、来館者とボランティアに差があつてはよくないことだと思った。
- ⑧最後に、在日の方が多く入館され、いろいろと教えていただき話げできた。

5 おわりに

今回ボランティアに参加して、学生の一般来館者に対する迷惑、試着コーナーでの忙しさなどもありましたが、終わってみれば多くの来館者と対話ができ、有意義な活動であったと思います。国立民族学博物館では毎回変わった趣向で展示されるので、新鮮な気持ちで展示場に立つことができます。(みんなくボランティア)

자원봉사 활동에 참가하여

黒田 和男

1 들어가며

저는 2001년 5월부터 국립민족학박물관의 전시에 자원봉사자로서 몇 번이나 참가하였습니다. 그 활동은, ①기획전 「大正・昭和생활의 박물관」이 2회, ②순회전 「도시락에서 믹스플레이트로」가 12회, ③특별전 「해달과 유리왕」이 11회, 그리고 ④「2002년 서울 스타일」이 18회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을 할 때, 전시실행위원의 선생님(이번에는 실행위원장의 朝倉선생님을 시작으로), 학습지원실, 관원의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 전시장에 섭니다. 내관자가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견학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 한마디 말을 거는 것에 의해 전시품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만족을 느끼며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품과 대화를 하면서 천천히 견학을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말을 거는 타이밍이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02년 8월 4일의 아사히신문의 투서란 「목소리」에 「살며시 유물과 마주하고 싶다」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동감입니다.

2 내관자에 대하여

이번에는 평일 12회, 토요일 6회의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였습니다만, 당연한 일이라고는 해도, 평일과 토요일은 내관자의 관객층이 달랐습니다.

평일은 학교단체가 다수 입관하였습니다만, 일부 학생이 관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심한 경우는 일반 내관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태도 몇 번인가 있었습니다. 소란의 한 요인에는 신발을 벗은 개방감이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보면 인솔하는 선생님이 보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어떻게 주의를 주어야 좋을까 당혹스러웠습니다. 한편, 선생님이 사전 견학을 하여, 워크시트를 지참하고 입관하는 학교도 있었다는 것도 덧붙여 두겠습니다.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온 내관자와 지역 그룹이 많아, 이층의 시착코너는 성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내관자 사이에서의 회화가 활기를 띠었던 것이 특히 인상에 남습니다. 일층에서는 가족의 비디오가, 이층에서는 제사의 비디오를 많이들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관자의 반응은, ①전시장의 대부분이 신발을 벗고 견학한다 ②관내

어디에서도 사진을 찍을 수 있다 ③일층에서는 주위의 케이스와 일부 고정품 이외는 손으로 만질 수 있다 등의 처음 경험하는 전시방법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또, ④멀리서 온 내관자 ⑤몇번이나 온 내관자 ⑥처음으로 박물관을 견학한다 등, 지금까지와는 관객 층이 다소 다르지 않았던가 합니다. 특히,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등에 몇 번이나 보도되었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3 질문에 관하여

- ① 이선생 일가의 생활 수준은 어떠한 것인가?
- ② 지금의 이선생 일가는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 ③ 전시 후, 이 자료들은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40 대 이상의 내관자의 경우, 생활 수준에 관해서 자신과의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서, 다소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4 이번 전시에서 느낀 점

자원봉사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순서 없이 써보겠습니다.

- ①일층의 전시는 대부분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일이 가능하지만, 이층에 올라가면 손으로 만질 수 없다고 하는 점이, 좀처럼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 ②한국의 아파트에서의 베란다의 사용방법이, 나라간 문화의 차이기 때문일까,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듯 하였다.
- ③어린이용의 시착부가 없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 또, 단체로 온 초등학생들로부터 왜 어린이 옷이 없는지 질문을 받았다.
- ④신발을 벗는 장소와 현관이 반대쪽에 있어, 입구를 알기가 어려웠다.
- ⑤일층의 가족의 비디오를 보는데 있어서, 비디오의 앞이 통로였기 때문에 편안히 볼 수가 없었다.
- ⑥학교 단체 입관 신청 때에, 전시 취지의 설명을 하면 어떠할까. 그 중에는 단지 전시장에 학생을 입관시켜 시간을 소비시키고 있을 뿐인 학교도 있는 듯 했다. 이것은 학교 단체를 배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흥미를 가지고 전시를 보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또, 입관 전에 5 분 정도라도 설명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단체의 입관의 때에는, 인솔의 선생님이 바로 알아보기 쉽도록 모자·원장 등을 착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 ⑦자원봉사자는 슬리퍼를 신고 있었으나, 내관자는 맨발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내관자와 자원봉사자에 차이가 있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⑧ 마지막으로, 제일 동포의 내관자가 많이 있어, 여러 가지 배울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5 마치면서

이번 자원봉사자에 참가하여, 학생의 일반 내관자에 대한 불편함, 시착 코너에서의 분주함 등도 있었습디다만, 끝나고 보니, 많은 내관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국립 민족학박물관에서는 매회 다른 취향으로 전시를 하고 있으므로, 신선한 기분으로 전시장에 설 수 있겠습니다. (민박 자원 봉사자)

